

한교연, 부활절연합예배 적극적 참여 호소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은 지난 4월 4일 오후 3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3·2차 임원회를 개최하고 회원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부활절연합예배 지원 문제 등을 중점 논의했다.

임원과 법인이사 등 63명(출석 22명, 위임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원회는 회원 가입과 관련해 한교연 창립 이전 한기총에 가입된 66개 교단 및 19개 단체가 가입을 원할 경우 7.7정관 경과조치에 의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날 임원회는 최근 가입신청서를 제출해 가입실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4개 교단 및 1개 단체 외에도 15개 이상의 교단이 한교연 가입 의사를 밝히고 정관상에 명시된 가입 절차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오며 따라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임원회의 이번 결의는 한교연 창립 이전 한기총에 가입된 66개 교단 및 19개 단체가 가입을 원할 경우, 이단사기비 관련 등의 특별한 하

제3·2차 임원회 개최 부활절연합예배 지원 등 중점 논의



자가 없는 한 가입 절차를 완화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임원회는 또한 오는 20일(주일) 오전 5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리는 2014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이번 부활절연합예배가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드리는 예배인만큼 한교연 산하 34개 교단과 10개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하고 "예배 순서에 이름이 올라있든 없든, 자리가 단상이든 단하든

구에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부활에 축하하는 기쁜 마음으로 다같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임원회는 오는 5월 1~2일 용인 성민수양관에서 제2차 임역원 및 총회대의원 워크숍을 갖기로 결정했다. 강원도 속초에서 가졌던 1차 워크숍에 이어 두번째로 갖게 될 워크숍은 임원, 법인이사,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임역원 뿐 아니라 각 회원교단을 대표하는 총회대의원까지 포함함으로써 한교연 전체 멤버십의 소통을 통한 교회일치와 연합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

다. 이번 워크숍은 교단·교회정관 및 운영체제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의 분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저녁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로 진행된다. 워크숍 기간중에 제3차 임원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임원회는 또한 Let's BIBLE 2014 성서체험전 전시행사를 그로프다알앤디센터와 공동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6월 15일부터 1년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5층 특별전시장에서 개최되는 랫츠 바이블 2014 성서체험전은 영상과 전시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성경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각 교회 성도들과 주일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교연은 임원회를 마친 후 그로프다알앤디센터와 MOU를 체결했다.

임원회는 또한 한교연과 전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국장, 부장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는 전 사무총장 안 모 목사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소속 교단과 당사자가 관련된 단체, 주요 인사들에게 공문과 호소문을 보내 이같은 고소고발 행위가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대한민국 군경은 건강한가?

국가의 간성인 군과 치안질서 보루인 경찰의 변질은 막아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전후 한 여수순환반란사건 4.3제주폭동, 6.25 직전 표무원 강태무 38선 집단월북사건, 건국직후 김일성 6.25남침으로 인한 만 3년 1개월 2일간에 걸친 전쟁, 4.19학생의거 직후의 혼란을 5.16군사혁명으로 겨우 수습 진정시켜 국가의 명맥을 유지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18대 11명의 대통령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으나, 건국과 6.25전란극복 대통령 이승만과 국기(國基)를 다지고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와 지적은 부정 매몰되고 6.15와 10.4를 통해서 김정일과 대통 결탁해 온 김대중을 성인(聖人)처럼, 부정부패수사 도중에 자살한 노무현을 의인(義人)처럼 떠받드는 희한한 나라가 돼 버렸다.

국회는 남민전과 전민전, 위장취업과 노동자폭동, 전대협과 한총련, 민노총과 전교조, 386주사파와 이석기 RO에 이르기까지 <위수갑동族 친지갑동派>,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반역 전과자들이 정당 정치의 맹점과 선거제도의 사각지대를 뚫고 국회에 대거진입 점거함으로서 종북 반역세력의 정계점수 교두보이자 대남적화해 명의의 진지로 전락했다.

사법부는 잇따른 종북반역에 무관용, 애국우파에 엄정각후 좌편향 판결과 '민본'의 끝 간 데를 모를 발호(跋扈)로 대한민국 가치규범과 법 정의를 한꺼번에 무너트린 사법부에 황관,향검,향변(鄕判,鄕檢,鄕辯) 트리오는 5억 황제노역 사건 막장드라마까지 연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가운데 사회문화 예술과 학문, 학원과 종교, 노동, 환경, 여성, 시민운동 각 분야역시 좌경운동권 서식처와 은신 암약의 발판이 된지는 한두 해가 아니다.

특히 민주화를 표방한 김영삼 정권 5년과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면

서 국가전체와 사회전반이 좌편향하면서 심지어는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군과 치안과 범죄질서유지의 참병인 경찰마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을 때, 앞선 데 달친격으로 광우병위협조작촛불폭동에 중화상을 입은 이명박 정권의 卍道 선언으로 대한민국 20년은 잃어버린 역사가 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4년 1월 김충배 당시 육사교장이 대한민국 국가간성(國家干城)이 되겠다고 육군사관학교에 지망 합격한 가입교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 250km 휴전선과 동서해상 NLL에서 대치하고 있는 6.25남침 북괴군이 아니라 미군이이라는 응답자가 34%나 나왔다는 결과에 경악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해괴한 일은 노무현 정권 국방장관인 윤광웅이란 자가 2004년 11월 12일 국방부 과장급이상간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혁신관련' 특별교육에서 "국방부가 주적을 표현한 건 언어도단"이라며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함으로써 대한민국 군대는 하늘에 대고 총을 쏘아하고 보이스 카우트만도 못한 민병대처럼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는 한편, 대한민국에서 육사(18기)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 육군준장으로 진급, 정훈감까지 지낸 표병렬이란 자가 평

화향군'이라는 반군조직을 만들었는가 하면, "F-15K는 살인기계"라는 공사생도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러 그 결과로 노크귀순이 발생하고 연평도 포격에 놀라 "엄마 전쟁난 내 나 어떻게 해!"하는 '아기병사'가 생기게 된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덕목으로 삼아야 할 경찰 역시 경찰대 출신 P 아무개와 노무현정권에서 특정한 K 모의 행태에서 드러난바 지역성에 사로잡히고 정치색에 물든 별종이 생겨날 정도로 심하게 오염 변질 된 게 오늘의 현실이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력한 숙군(肅軍)드라이브가 있었어야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입법 사법 행정각부와 정시군사외교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친 <정상화(正常化)>에 가속도가 붙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야권진보(종북)연합후보를 더블스코어로 물러치고 대통령에 당선 된 이명박의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국가사회 각 분야에 고질(痼疾)이 만연하고 병통(病痛)의 뿌리가 깊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국민이 국가정상화에 혼연일체가 된다면 결코 늦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군과 경찰 아직은 건강한가? 지문 백승묵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사설

5.24 대북제재조치 완화 해제는 어불성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서해 NLL남쪽 백령도 연안 해상에서 김정은 해적단 잠수정이 불법 침투하여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을 어뢰로 기습 폭침시켜 국군 46명이 전사하고 구출작전에 나섰던 한주호 준위와 쌍팔이 어선 선원 9명이 희생되는 대 참사를 당했다.

이로 인해 정부와 군은 2개월여의 5개국 합동조사 끝에 폭침원인과 경위를 밝혀내고 영해침범 수중 테러범죄를 저지른 김정일과 김정은 집단에게 국제사회와 공조, 5.24 대북제재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남침점범집단 천안함폭침 테러범 김정은은 '시인, 사가, 책임자 처벌, 배상 및 보상, 재발방지약속 및 실행보증'이라는 사후조치 중 가장 초보적인 시인, 사가 조차 않고 4년을 버티면서 적반하장 식 억지 주장과 연평도 포격 3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일삼아 왔다.

하나 정부와 군은 응징보복 대신에 엄포만 하고 일부 병력장비 보강으로 뺄질식 임시변통뿐, 최소한의 필수적 대응조치인 빠라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출재개 정도의 잔술 심리전 재개조차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그 결과 김정은과 남한 내 종북 반역세력이 내통결탁, 천안함 '폭침(爆沈)' 테러범죄를 부정은 폐하기 위해서 '침몰(沈沒)' 설을 집요하고도 광범하게 유포함으로써 악랄한 해상도발 국제테러 형사 책임을 모면하려는 또 다른 음모를 착착 진행 상당수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이를 반증하듯이 우리 사회 내부에는 북괴의 집요한 선전선동이 먹혀들든 탓인지, 도발위협에 굴복하려함인지 친노와 종북을 중심으로 이렇듯 문재인 같은 부류들이 여전히 침몰설을 견지하고 있는가 하면, 사회일각에서는 5.24 조치 완화 해제 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4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김정은이 아무리 완강하게 추궁해서, 김정은이 아무리 완강하게 부인하고 강력하게 거부해도 범행 사실과 그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북괴가 초보적인 시인 사가 조치마저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최소필요 대응책임 5.24 조치를 완화 해제한다는 것은 '침몰설'을 인정하는 꼴이며, 김정은 김격식 김영철로 이어지는 테러도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김세는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에 참패한 김정일이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을 유발, 우리해군 참수리호를 격침, 6명의 장병을 전사하게 하는 '보복전'을 자행한 사실과는 부끄러운 대조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과 민간 56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침에

김정은 시인 사가 없는

5.24 일방적 완화는 이적,

해제는 반역에 직결

대한 시인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책임전가와 공갈협박을 일삼는 김정은에 대한 제재를 단 한 순간이라도 멈추거나 단 한 치라도 완화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이 끝내 시인사과를 거부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앓는다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정에 세워야 함은 물론, 김정일 시인이라도 끌어내고 김격식 김영철 등 하수인을 교수대나 처형대에 매달기까지는 단 일보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만약 학계나 언론 또는 정치권이나 정부 일각에서 5.24 제재조치 완화 내지 해제 주장이 나온다면, 그 발설자의 성향과 진원지의 과거행태를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며, 차후에 초래될 국격(國格)훼손과 안보(安保)위협과 국익(國益) 손상에 대한 책임문제를 강력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 국가의 존엄, 국가안보는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11:25-26절)

“2014년 동여” **“앞서가는 교회”**

구원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 훈련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 문화사역에 앞서가는 교회

비전 2020

1. 열정적 전도
2. 전인적 양육
3. 사랑의 공동체
4. 감격의 예배
5. 기쁨의 봉사
6. 즐거운 교제
7. 능력의 선교

100교회보조단목선교사10가정파송
지교회10교회살림

담임목사 **이준복**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예배시간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주일오전 7시30분	대예배홀(3층)
	2부	주일오전 9시30분	대예배홀(3층)
	3부	주일오전 11시30분	대예배홀(3층)
주일청년예배(4부)	1청년부	주일오후 2시30분	비전홀(1층)
	2청년부	주일오후 2시30분	1세미나실(2층)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 3시	대예배홀(3층)
수요 예배		오후 7시(하) 7시30분	대예배홀(3층)
수요 심야 기도회		오후 8시(하) 8시30분	대예배홀(3층)
새벽 기도회	1부	매일 오전 5시	비전홀(1층)
	2부	매일 오전 6시	비전홀(1층)

www.inamhyun.org

2014 한영훈 사랑 축제 6월 15일

아름다운 만남을 시작합니다. **남현교회 대예배홀**

- 4월 6일 : 선포식 / 전도시상
- 4월 14일-4월 27일 : 예비신자 목장별 작정 및 시상
- 4월 28일-6월 14일 : 예비신자 관계맺기
- 4월 29일 : 여전도회 부침개 전도 시작
- 5월 12일 : 전교인 릴레이기도 시작
- 5월 18일 : 가족전도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
- 5월 25일 : 전교인 택시타고 오는 날
- 5월 29일-5월 31일 : 한영훈 사랑 뮤지컬 “발칙한 흥부전”
- 6월 1일-14일 : 만남과 초청주간(초청장, 선물)
- 6월 8일 : 전교인 노방전도 · 6월 15일 : **한영훈 사랑축제**
- 6월 22일 : 재초청 및 등록 · 6월 29일 : 재초청 및 등록
- 7월 6일 맥추감사절(총동원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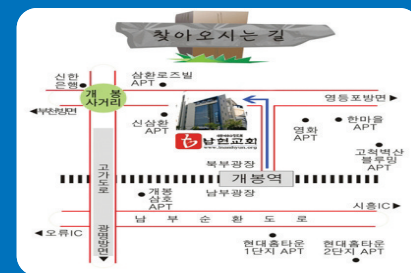
■ 부교역자
부목사 : 김성진, 최성일, 이정훈, 최영만, 고두빈, 서경훈, 윤영배
찬양목사 : 이인섭
전도사 : 손원경, 정의환, 강요한
교육전도사 : 서은영, 김평화, 임상규
파송선교사 : 김상식, 이성진(필리핀) 김진우, 박은원(인도네시아)
방송간사 : 유호준

■ 시무장로 및 협동장로
● 시무장로 : 강성재, 이선홍, 임승수, 장현용, 김대웅, 강권화, 전영수, 이환근, 정인호, 박석환, 강성학, 김상근, 김문하, 나현영, 지윤섭
● 은퇴장로 : 배재호, 정형철, 황이만, 정형규

● 협동장로 : 김태일, 윤방식, 엄익범, 심상길, 김흥기, 정강희, 김요구, 조성덕
■ 찬양지휘자 및 반주자 : 찬양지휘 : 김성강, 윤석민, 류현주, 배영해 · 오케스트라단장 : 차추남 · 피아노 : 서혜원, 김창미, 김서진, 정유나 · 오르간 : 이지영 · 신디 : 장은영, 김소희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www.inamhyun.org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46(개봉동 170-18)
전화 / ☎02)2618-8877-8, 2060-9123
FAX 2060-9124 / 당회장실 ☎ 02)2684-3317



부활절용품 최대 30% 할인해요!

홀리스퀘어, 집중 할인기간 파격적인 혜택도 기대

4월 20일(주일),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기간을 맞아 부활절과 관련한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종합쇼핑몰 홀리스퀘어(www.holysquare.com)



는 4월 1일부터 19일까지 '2014 부활의 기쁨소식' 이벤트를 진행 한다. 각종 성구용품을 비롯해 사순절과 부활절에 사용할 용품을 품목별로 10%에서 최대 30% 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를 위해 홀리스퀘어는 구운 달걀을 비롯해 부활절 달걀백, 접착식 비닐, 달걀주머니와 함께 부활절 주보, 부활절 현금봉투 등 부활절 관련 상품들을 기획, 판매하고 있다.

더불어 부활절 예배 시 필요한

성찬전병, 성찬포도즙, 성찬기와 떡그릇 등의 예배용품과 나무십자가 목걸이 등 이번 이벤트기간을 이용하면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부활절 상품을 대상으로 특별할인기간을 설정(4월 3일부터 10일까지)하여 파격적인 할인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교회에 상품 주문시 알뜰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홀리스퀘어 관계자는 "매년 교회 절기를 앞두고 각 교회의 물품 구매 담당자들은 한정된 예산에서 알뜰하게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으며, 홀리스퀘어는 이러한 고민을 잘 알고 있기에 한국교회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조금이나마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할인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는 기독교종합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상품주문은 전화주문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다. [문의 : 02-518-9876]

한교연 2014년 부활절 메시지 발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부활절에 즈음하여 메시지를 발표하고 온 지구촌이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와 영광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했다.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부활절 메시지에서 "우리 사회에는 가난과 질병, 장애와 차별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으며 물질만능주의의 어두운 그들이 드리우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양극화가 끝없는 탐욕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극단적인 간격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고통과 좌절을 희망과 환희로 바꿔주시기를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메시지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겸허한

성찰과 진지한 각성을 촉구한다"면서 "지난 1세기 동안 나라와 민족에 희망이었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

서는 회개와 영적·도덕적 각성과 경신으로 재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시지는 이어 "한국교회는 모든 인류가 종교와 사상, 피부색, 빈부의 차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며 서로 소통하도록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메신저로서의 사명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겸허한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캄보디아선교를 다녀와서

세계캄업선교회(대표회장 이재갑 목사)는 11명의 선교회원과 동행 5박 6일(3월16~22일)간 캄보디아 선교활동을 하고 귀국했다.

I. 선교의 중요성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미전도종족 선교연대는 국제포럼을 통해 전세계 16,074 종족중 미전도 종족수는 6,918개로 그 중 80%가 북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넓게 분포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전도 종족이란 기독교인 3.0%미만 개신교 1.0%미만의 종족이나 국가를 말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웃나라인 일본, 터키, 인도가 복음화를 2.5%에도 이르지 못해서 미전도종족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며 캄보디아 역시 복음화율이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전도

국이라는 사실이다.

II. 캄보디아의 현황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 남서부이며, 수도는 프놈펜, 화폐는 리엘, 언어는 크메르어, 인구 15,205,539명 (2013), 세계 68위, 면적 181,035km, 90위, 기후 열대몬순성기후, 종교 소승 불교 95%, 종족 크메르족 90%, 베트남인 5%, 기타 중국인 등 5%, 정체 입헌군주제 의회형태 양원제이다.

III. 선교지 현황

1. 코프주는 캄보디아 남서부에 위치한 주로서 인구는 139,722명, 면적은 11,160평방킬로미터, 인구밀도는 12.5명/평방킬로미터이다. 한편 선교센터가 있는 코프은 태국 국경에서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북위 11도



37분, 동경 102도 59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프주의 주요도, 타일랜드 만과 접하며 인구는 29,329명의 도시이다.

2. 코프 선교센터 현황은 대지 면적 2,000평, 시설, 세하 코프교회 20평, 생활관 30평, 교육환경 초중고 및 4년제 종합대학, 3. 언동목교회 현황은 대지면적 1,000평, 시설, 세하 언동목교회, 1층 기숙사(6개 룸= 18명 기숙가능), 2층 예배당 35평, 교육환경 초중고, 4. 치맛교회 현황/대지면적 900평, 예배당 35평, 교육환경 초중, 등이다.

와 선교찬양단과 청년부의 특송, 이현구 목사의 축사, 성전건축대표 강종수 장로의 격려사 그리고 이상열 목사의 축도로 드러났다.

이어 3월 19일 11시 세하 3성전 세하치맛교회에서 3월 19일 11시에 예배를 드렸다. 교회규모는 35평, 선교회원 12명과 성도와 지역주민 150여명이 엄성일 선교사의 사회와 김요열 목사의 대표기도, 이상열 목사의 설교, 선교찬양단과 교회청년부의 특송, 성전건축 대표 김경자 권사, 홍성경 권사의 축사, 이현구 목사의 격려사, 하종우 목사의 축도로 봉헌예배를 마쳤다. 이날 세하코프교회 현지인 전도사 신디가 통역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심령부흥집회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고, 특기할 만한 일은 세하코프교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집사가 있어 가게 문을 사흘간이나 닫고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엄성일 선교사의 설교에 감동받은 남편집사는 이미 일 년 전에 황

금 공작을 신양 양심상 접고 조그마한 가게를 내어 근근이 어렵게 살아오던 중 이번 교회 행사에 이토록 충성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감동받은 선교회원들이 가게에 있는 물건을 대부분 사주는 미담이 연출되었다.

2. 앞으로의 비전은 전 선교회원들이 힘을 모아 두 봉헌 교회에 음향시설, 발전기, 우물 등 캄보디아에서는 힘든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 주기로 즉석 현금 작정을 430만원 하였다. 그리고 매달 80만원의 기본생활비 및 운영자금을 송금해 주기로 결의하였으며 정기총회와 회원 방문 순회 월례회 모임을 통해서 더욱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엄성일 선교사와 세계캄업선교회는 앞으로의 비전을 교회부흥은 물론 학사관 건립과 교육기관건립에 두고 있다. 두 기관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교회지도자와 사회지도자를 배출하여 그들로 캄보디아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큰 비전을 세웠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인: 이종진 목사 이장: 장기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장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ntvcpj@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부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5:15)

수목원교회



담임 최순길 목사
본지 상임이사 및 논설위원

152-102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02)2683-2091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담임 임해숙 목사

441-85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T/F: 031)224-4947 영상전화: 070-7947-4798
H.P; 010-4611-3221(문자)

주일예배안내

오전 11시
오후 2시30분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박순목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를 누리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사랑, 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석/작기 요양원 정동진 해방원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철신학교수
- ◎ 서울 칼로스신학연구원 교수
- ◎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우슬초 목사

주일예배안내

주 일 오전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새 벽 5시

702-735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70)4220-7735, 053)741-7732

2014년 포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담임 서명범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사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 사 : 전순자, 김정애,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실업일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담임 박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수요일 : 오후 7:30
주일오후 : 오후 2:00 새벽기도 :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은주 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영적복음가수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이영표 CTS기독교TV 사장 취임 감사예배

“연합선교기관으로 교단과 함께하는 방송 되도록 노력”

CTS기독교TV는 7일 오전 8시 CTS멀티미디어센터에서 이영표 신임사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최희범 CTS 상임고문의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에는 CTS공동대표이사 안명환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와 전용재 감독, CTS 이사인 오정현 목사(사랑의 교회 담임), 손달익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표 사장은 취임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86개 공교단의 연합선교기관으로 교단 및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2015년 CTS 창사 20주년을 맞아 CTS 미디어 사역이 도약의 20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신임 이영표 사장은 서경대 영문학



과,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핏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 중이며, 사랑의교회(합동) 장로로 한국 씨티은행 상무를 역임했다. 2010년 3월부터 CTS기독교TV 부사장으로 재직해 왔다.

안명환 공동대표이사는 ‘나의 품꾼’(레 25:55)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안목사는 “CTS를 위한 하나님의 품꾼이 되었으니,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적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재 공동대표이사는 “앞으로도 CTS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기지 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줄 바란다”고 축사했다.

CTS 이사인 오정현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요셉처럼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전문경영자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CTS 이사회는 지난 3월 12일 당시 이영표 총괄부사장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설립 20주년 감사예배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열정 넘치는 전도로 교회가 가득차고 있어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예장 예복교회가 지난 23일 주일 설립 20주년을 맞아 성도들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예배를 드렸으며, 축제의 장이 되었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주일 오전 11시 소진우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양상운 안수집사가 기도를 하고, 호세아 2:1~7절을 봉독한 후 성가대는 “주님께서 세운 교회”를 찬양을 드렸다.

이날 설립 20주년을 맞은 주일 축제의 장에 답일 소진우 목사는 존경하는 이석용 목사(영훈교회 원로)를 초청하고 설교를 부탁했다. 이목사는 “호세아의 결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소진우 담임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아울러 담임 소진우 목사는 전성도들과 함께 예복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케익절단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갖는

등 화기애애한 축하의 장이되었다.

20주년을 맞은 예복교회는 1994년 설립되어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온 가운데 2010년 3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40(장암동) 수락리버시티 2.3단지 내에 성전부지를 구입하여 기공식을 갖고 교인들과 많은 동역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삽을 가졌다.

예복교회는 지하 2층 지상 4층 지하 총 발코니석, 자모실, 조정실, 로비, 새가족교육실, 창고, 지하 2층 분당, 준비실, 새신자실, 저수소 펌프실, 창고, 지상 1층은 북카페, 주차장, 지상 2층, 중예배실 좌석 110석, 소예배실 좌석 80석, 사무실, 부교역자실, 지상 3층 소모임실, 게스트룸, 목양실, 재정부실 등 지상 4층과 식당, 및 옥상 정원 등을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되어 2013년 4월 20일

(토) 오전 11시 새성전 입당예배를 드렸는데, 예복교회는 입당예배 1년 만에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의 열정으로 많은 부흥을 이루었고 앉을 자리가 부족하여 주일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편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는 예복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매년 365일 매주간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유능하고 소문난 부흥강사이다.

또한 문서선교를 위하여 지저스타임즈 신문사 및 jtntv방송을 운영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구독자가 늘어나고 인터넷방송 시청률이 날로 상승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 결국 예복교회성장과 신문방송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믿어진다.



사도영성신학원 2014년 봄 학기 개강예배

사도영성신학원(학장 홍향표 박사·사진 좌)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서빌딩 612호에서 2014년도 봄 학기 개강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동현(선교회 총무)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 선년규 장로가 기도를, 학장 홍향표 박사는 갈 1:7-8절, 고전1:18절을 인용“십자가의 도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허식 목사(한국경목총회 직전 총회장)의 축사와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학장 홍향표 박사는 “사도들의 영성 특징은 예수님의 영성인 청빈,



순결, 순종의 삶을 본받는 것이라며 1. 사도들은 미래를 산 사람들이다. 2. 사도들은 마귀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3. 사도들은 실천하는 지성인이다. 4. 사도들은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다. 5.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이다.”라면서 사도영성신학

원은 평신도나 신학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며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집중교육에 힘쓰는 장점이 있다며 소개했다.

문의 : Email church_7@hanmail.net
학장 010-7585-1955 02-2625-0982

죽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고전15:12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당회장 조강수 목사
Pastor Gang Soo Gho

· 부 목 사 : 이주홍
· 협력선교사 : 김종록, 서승학, 차명호, 권오성
· 장 로 : 임청수, 이청옥,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 심방전도사 : 원명숙
· 교육전도사 : 이민균, 이윤경
· 전 도 사 : 양승숙
· 성가 대장 : 박남희 · 지 휘 : 조은총, 왕소정
· 반 주 :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배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 예배 호후 8:00	금요일야 예배 밤 11:00	학생부 예배 (토) 오후 4:00
주일 저녁 예배 오후 7:00	새벽 예배 새벽 4:3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00	청년부예배 (토) 오후 6:30

가보고 싶은 영광교회, 만나보고 싶은 조강수 목사... 추천합니다.

DGB금융그룹, 사회공헌재단 경북북부 제 2교도소 방문

감사나눔 교양서적 300권 및 후원금 1천만 원 전달

DGB금융그룹은 DGB사회공헌재단을 통해 경북 청송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북부 제 2 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교도소 교정·교화사업의 일환으로, 1일 경북 교도소를 방문해 감사나눔 교양도서 300권을 기증하고,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DGB사회공헌재단은 2012년부터 경북북부 제 2교도소에 수용자 교정 교화를 위해 년 1,00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문화예술공연으로 가수 선우해경, 색소폰 대니킴, 비보이 등을 통해 수용자들을 위로 하였으며, 따라서 7월에는 생수, 산계탕 통해 수용자들의 마음에 소망과 위로를 심어 주었다. 게다가 가을에는 가족들과 단절된 불우 수용자들에게 영치금을 후원하고, 초겨울에는 동내의를 지원하고 있다.

박인규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단순 일회성 전사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지원 사업으로 교정



행정 발전에 일조하겠다”며 “수용자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경북북부 제 2교도소 신동운 소장은 DGB사회공헌재단에 감사함을 전하고 이번 감사나눔의 책자를 통해 수용자들의 마음에 감사의 씨앗이 심

겨져기를 바라고, 수용자들의 마음에 자아와 자존감이 회복되어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에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칼럼

자산위에 핀꽃

봄의 절정기인 4월이 되었다. 봄은 꽃의 계절이다. 개나리, 복련, 벚꽃이 만개되고 자산위에 잔달래가 오산을 붉은 빛으로 치장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잔달래 꽃잎을 따서 보약을 만들었다. 잔달래 꽃잎을 큰 대나무에 가득히 따서, 옹기 단지에 꽃잎을 한꺼 다져 넣고 흑설탕을 꽃잎이 보이지 않게 넣어, 꽃잎과 흑설탕을 번갈아 한꺼 한꺼 채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손으로 다져 이구까지 채운후, 비닐봉지와 헝겊으로 밀봉하여 단지에 땅속에 묻어 3개월 후에 꺼내어 개봉하면 잔달래 꽃잎은 완전히 진액이 된다.

다른 옹기에 옮겨 병장기에 넣고 하루에 작은 컵으로 한 컵씩 마시면 한다. 무릎 등 뼈의 아픈 증상은 모두 사라지고 가벼운 몸을 만드는 건강보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살고 있다. 어느 노인은 젊은 시절에 시력을 잃었다가 40년 만에 시력을 되찾아 기쁨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할 수 있으며 건강히 걸어 다닌다는 것은 세



서영웅 목사
류티단 장로교회
상임이사

상을 다 준다 해도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건강하게 살아 있음을, 사력을 다시 찾은 사람의 기쁨처럼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보배이다.

우리는 100 국가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역대 대통령 중에 여성대통령을 선출하는 놀라운 정치변화를 가져왔다. 변화는 인간의 새로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외교는 역대 정권 보다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자녀날 외교적으로 답을 쌓은 국가들이 개방외교의 문을 열고 있다. 대통령에 앞서 여성이라는 점은 이름과 몸과 부드러운 속에서 뛰어난 감각을 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녀위에 핀 꽃으로, 세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추앙하도록 국민이 따르고 적국까지 해야 한다.

대통령의 정책에 순응하여 발전 국가를 이루도록 해야 앞으로 G37로 등장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발전을 저해하는 가시 같은 존재들이 국가기관을 비롯해 정계에 산재하고 있다. 지난날 국회의원의 이석기는 국회 뺨치를 달고 국회에 좌파들을 모아 10조치를 형성하여 국가전복을 위해 입후한 것이다.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재판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판결을 못하고 있음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입장을 바꾸어 남쪽에서 북에 가서 이석기 같은 국가전복 행위를 했다면 우리처럼 재판이 있었겠는가. 당시자 처형은 물론 그 조직 전체를 극악한 처형으로 주시 처리했었을 것이다.

국가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는 아념교육을 시켜야 한다. 관점사의 정신이 좌파에 기울어 있다면 재판의 여정은 오래 갈 것이다. 지난 70년대 국가 지침은 “우리는 반공을 국사의 제일의로 삼는다”는 포어를 내걸고 반공사상을 고취시켜 왔다.

우리는 국민정신을 반공사상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4년전 천안함 포격으로 젊은 46용사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국가방위를 위해 하다가 목숨을 바친 것이다. 대전현충원의 참배객들의 한화와 특히 가족들의 울부짖음은 모두가 비통한 심정이었다.

북괴 김정은의 대남침투 야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서해상 NLL의 남쪽을 향해 수백발의 장거리포를 발사하는가 하면, 무인비행기로 서울 상공에서 주요시설을 확인 촬영하여 귀향로에서 추락하여 잔해를 확인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의 안보가 너무나 안이하고 위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북한과 대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북한과의 접촉을 못해하는 것은 국민의 울분을 자아내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보다 몇 배의 강한 최첨단무기의 생산 배치와 강력한 군사 훈련을 해야 한다. 육·해·공 모두의 군복무를 완전히 3년 이상으로 하여 유대자로서의 강군을 형성해야 한다. 북한군은 5년의 복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18개월 군복무를 한다는 것은 어른과 어린이와의 싸움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보다 몇 배의 더 강한 미사일과 핵을 자생 배치하여, 강력한 국방력이 모든 분야에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북괴 김정은이 무를 꿔고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그때에 대통령이 말한 “통일은 대박”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개 숙이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은 세계의 비웃음거리인 것이다.

“자산위에 핀꽃”대통령의 이름다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국가발전의 이투기를 국민과 더불어 기대한다.

경찰관들을 위한 행복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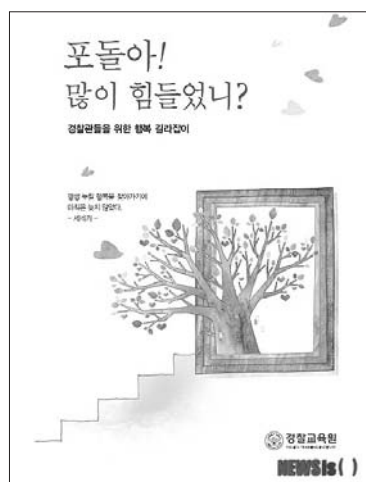
『포돌아! 많이 힘들었니?』출간

‘경찰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합니다’

경찰교육원(치안감 정용선)은 치안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경찰관들의 애환과 위기극복 방안을 고심한 책 『포돌아! 많이 힘들었니?』를 출간했다. 이 책자는 ‘경찰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합니다’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안전과 사회 행복의 시작이 바로 ‘경찰관의 행복’일 수 있다는 시각으로부터 만들어진 책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그동안 대국민 경찰활동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면, 내부 경찰관을 향해 던진 시선의 변화는 자못 ‘신선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책자는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제1편에서는 ‘부부가 가꾸는 행복’을, 제2편은 ‘자녀와 나누는 행복’을, 제3편에서는 ‘직장에서 행복 만들기’를, 제4편은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 여행’을 담고 있다. 내용 전체가 경찰의 현장 이야기이며 동시에 행복을 향한 고심을 풀어내고 있다.

경찰관들을 위한 행복 길라잡이



발간 배경으로 책에서의 질문처럼 과연 경찰관과 그 가정은 행복할까? 실제로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에서 2012년에 경찰관 26,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관 가운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이 30.7%에 달하고, 스트레스반응 고위험군 또한 20.2%에 달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최근 5년간(‘09년~’13년) 자살 경찰관이 연평균 18명에 달한다고 한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경찰부터 오히려 스트레스로 가득하다면 안전과 행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경찰관들의 스트레스와 행복 지수에 대하여 경찰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교육원(치안감 정용선)은 “자신도 행복해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 힘든 업무를 수 있는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경찰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경찰교육원에서는 책 이외에도 교육과정 중에 ‘부부 대화법’, ‘자녀와의 대화법’, ‘행복한 가정’ 등 경찰관의 행복 가꾸기를 위한 교과목을 편성, 진행하여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경찰관 행복 지킴이 역할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찰이 행복해짐으로써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의 선순환’이 신나게 맞물려 돌아가길 기대해 본다.

낙태근절을 선포한 생명존중문화2014.대행진

낙태를 반대하는 사회 각계 직능인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연합회는 여성과 태아 둘 다 지켜내는 생명존중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2014년 4월 13일(일) 오후 2~5시에 청계광장에서 생명대행진2014를 개최한다.

프로라이프연합회는 낙태근절을 선포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만든 의사회를 시작으로, 생명사랑을 외치는 변호사회, 교수회, 여성회, 청년회 등 생명운동 단체들이 생명존중의 공동목표로 2011년 6월 18일에 연합한 단체이다. 프로라이프연합회는 2012과 2013년 두 번의 생명대행진을 개최하였다.

올해 생명대행진의 주제는 여성과 낙태이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과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다. 여성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위하여 낙태를 거부하고 태아를 소



중히 지켜낼 것을 외치며,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비우당교까지 약 4.3 km를 행진할 것이다.

후원 및 참여 단체는 예수의 꽃 동네 유지재단, (사)낙태반대운동연합, 천주교 청주교구 새생명지원센터, 주사랑공동체, 인천자모원, 천주교 청주교구, (재)한마음함뎀운동본부, (사)한국임양홍보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원제약, 경

동기업, 천주교 주교회의의 생명운동본부 및 수도권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들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인 차희제 생명대행진 준비위원장은, 낙태는 두 사람의 문제이며 낙태는 더 작은 한 명의 희생을 요구하지만 살아남은 나머지 한 명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축 부 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국제자연치유선교학술회 봄 학기 세미나 시작

국제자연치유선교학술회는 2014년 봄 학기가 시작되어 매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강의가 진행됩니다. 지역선교를 위해 침술·카이로프라틱·부항·홍채학·경락수기요법·자연건강 효소·쑥뜸·약초를 통한 경혈법·고혈압·당뇨 등 난치성질환 예방·자가 진단 테스트·항암 등 교육으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돌볼 수 있고 선교사역에 활력이 되는 귀한 강의가 시간마다 진행됩니다.

한 교회에 두 세 사람만이라도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이웃초청 전도에 큰 활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선교사 지망생들은 꼭 받을만한 선교에 필수적인 자연치유 교육입니다. 특별히 미자립교회 재정확보와 목회자 노후 대책 방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교회 두 명 정도씩만 참석해서 전문사역자 훈련을 받아 놓으면 선교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소 : 4호선 대야미역에서 큰길 쪽 200m지점 대성프라자 4층 새중앙교회,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657-1 많은 참석바랍니다.

국제자연치유선교학술회장
허식 목사 010-3348-6374
국제문화예술선학원장 김창룡 목사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임동보수 총무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404-709 인천시 서구 경서동 태평상베르 1차(a)
106동 1402호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임동보수 총무회장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30

153-80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023281-317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임동보수 총무회장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131-221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ungi 목사
본지 상임이사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139-869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임동보수 서기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702-735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704220-7735, 053741-77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임동보수 회의서기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29-81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031315-8290

다니엘 6장 강해 (16)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뜻을 이루신다

단 6장「다니엘은 불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상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다니엘은 이를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생명이요, 양식이다. 6: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삼켜지 아니하였사오니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었으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자 굴에 던져 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는 다니엘을 위함이고, 둘째는 다니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다니엘이 사자로부터 어떠한 해도 받지 않은 것은 자신은 아무 죄도 없고 왕에게도 어떠한 해를 끼친 일이 없음을 하나님이 증명할 한 것이다.

만약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사자 밥이 되었을 것이고 왕 앞에서 해를 끼쳤거나, 또는 왕을 업신여김으로 왕이 내린 명령을 반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다니엘은 이미 사자에게 잡혀 먹혔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다리오 왕 앞에서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것이다.

6:23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니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굶주린 사자 때에 던져졌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자는 짐승 중의 왕으로서 모든 짐승을 다 잡아 먹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짐승 같은 자리면 굴속에 던져졌을 때에 바로 잡혀 먹혔을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짐승 같은 자가 아니다. 육에 속한 것도, 육적인 냄새조차도 나지 않으니 사자에게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은 것이다. 다니엘은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다니엘이 사는 생명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을 생명으로 삼고 있다.

순교자는 자기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자기에게 입혀줄 첫째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지만, 다니엘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의 말씀처럼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에 해당된다. 흰 옷은 순교자들에게만 입혀준다.

그런데 아직 순교를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흰 옷을 입혀주신 것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올라 서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이 신랑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살아가 다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 생명이 다른 영혼을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 뿐 자기 육신적인 것으로 사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기에 사자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이다.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이와 같은 자리에 올라 서 있으면 실제로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다니엘은 이를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생명이요, 양식이다.

요한복음 4장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다니엘도 이와 같다. 다니엘이 의뢰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살리심 받는 것이 다니엘의 기쁨이요, 생명이요, 양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악한 자로 하여금 올무도 놓게 하시고 사자 굴에 집어넣기도 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사자 굴속에 던져져도 기뻐할 수 가 있는 것이며 사자 굴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에 쓰임 받고 있는 도구에 불과함을 믿기에 사자의 포효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처럼 모든 만물은 협력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곧 다니엘이나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동원되고 활용되는 것이다. 사자들, 간계를 써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 받고 있음을 다니엘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

다니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극심한 환란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길 수 가 있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대한노회 노회장
연료부총합 부총재

· 선교칼럼 - Are You World Changer?

도시선교의 한모퉁이 - "소외된 이웃을 찾아라"!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을 준행하는 거룩한 행진이다”

이 거룩한 행진은 방향이 중요하다. 21세기 우리의 선교전략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다양한 체제의 변화와 문화, 인종이 공존하는 도시는 치열한 영적전쟁의 현장이요 선교의 황금어장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농촌과 도시를 비교할 때 농촌이 빈곤하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하겠지만 선교의 눈으로 바라보면 도시의 빈곤은 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재앙과 같은 것이다. 이런 재앙은 제3세계나 미개척적인 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G7안에서도 존재 하는 것이다.

필자는 세계정상 G8국가인 미국에서도 도시선교의 필요성을 발견하며 선교하고 있는 아주 작은 한인교회 사역을 조망해본다. 120년전 우리나라 "조선"에 복음을 전해주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엄청난 선교자금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 준 미국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소외되

김창웅 목사
하나님미디어인하교회 담임목사
본지 선교 칼럼리스트

고 빈곤에 시달리는 세대와 영혼들을 보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한인교회가 있구나 얼마나 아이러니 한가.

캐롤튼 한인제일 침례교회(담임목사:신종우) 김병우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달라스 캐롤튼지역을 섬기고 있다. 달라스 지역사회를 위한 캐롤튼 한인제일 침례교회의 사역은 너실함(양로원), 장애인, David Christian School을 섬김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하는 모든 사역을 한

교회의 사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스 종합 복지관의 이름으로 한인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실제로 지역에 여러 교회가 이 지역에 동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자원봉사자로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다. 너실함사역은 매주 월요일 저녁 캐롤튼에 위치한 너실함에 방문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섬기고 있다. 화요일에는 캐롤튼 한인제일 침례교회에 모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공부를 하고 독거 노인들을 위해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Meal and Wheel이라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하고있다.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혜택과 의료혜택을 위해 세미나를 매달 개최하고 실제적으로 직접 찾아가 노인들을 도와주고 있다. 매 주일 아침에는 너실함에 방문

해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

처음에는 23명이었지만 지금은 30명이 넘는 노인들과 너실함의 간호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린다. David Christian School은 성경적 교육법을 근본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DCS는 이혼가정이나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그리고 저수입가정의 아이들을 우선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15명의 비장애우 어린이들과 7명의 장애우 어린이들이 함께 교육받는다. DCS는 토요일 오전 9:30 부터 오후 3시 까지 성경암기를 시작으로 Math, Korean, Bible, Music, Band, Art, 언어치료, 부채춤, 사물놀이 교실이 있다. DCS원장인 신종우 목사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을 한사람씩 기도해주며 DCS를 통해서 장애인 어린이나 비장애 어린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기쁨 그리고 참 교육 받기를 소망한다. <다음호에 계속>

· 칼럼

크도다 그 이적이어

다니엘서에 기록된 시드락 메사 아벳느그의 신앙사상을 보면 느브갓네살왕이 금상상을 만들어 바벨론 무라 광지에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약기를 올리면 앞뒤로 절하고 명령 하였다. 모든 백성이 신앙 앞에 절하였으나 시드락 메사 아벳느그는 절하지 않았다. 왕이 그들을 불러 약기를 올리면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에 던지겠다고 하였으나 그들은 거절 하였으며 광산지 보다 철매나 더 뜨거운 풀무 불에 던짐을 받았다.

왕과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풀무불에 던짐을 받은 그들은 즉시 타죽지 않고 네명이 풀무불안에서 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느브갓네살왕은 급렬히 타는 풀무가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시드락 메사 아벳느그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그들이 풀무기운에서 걸어 나온 내용이다.

다니엘4장33절에 느브갓네살왕은 그들을 보고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시여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요 그 권력은 대대에 이르리라"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내용이다. 함이 없는 국가는 언제 나 강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 힘은 첫

서영웅 목사
퓨리안 침례교회
성임이사

째는 사상이며, 둘째는 경제이며, 셋째는 국방력이다. 이것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그중에 사상은 국가관으로서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우월성과 공산주의 진화상을 심어주어 확실한 국가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중학교에서 반공교육을 시켰다. 한국반공연맹에서 각 중등학교와 협의 교육일정을 만들어 외부인사 및 연맹 교육강사로 반공교육을 시켰으며, 보이스기둥과 걸스기둥 학생들을 전방 제2정규를 견학시켜 반공정신을 고취시킨 것이다. 전방 땅굴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6·25노래를 제창하며 두주 먹을 쥐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지금 50대

로 알고 있다.

국가관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사상인 것이다. 오늘의 교육현장을 보면 글공부에만 치중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며 학생들은 왜 북한 감정은 이가 나쁘냐고 질문할 정도이니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확실한 국가관을 가르쳐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과 공산주의의 진화상을 알려 주어야 한다.

공산주의는 그 사상이 한번 물들면 전향은 어려운 것이다. 그들은 생명을 버쳐 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지난 날 대전 형무소의 죄악수 48명을 교육시킨 적이 있었다. 그들은 6·25당시 인민위원회와 자유대라는 조직을 통해 공산당의 앞잡이 역할을 한 약질 반동주의자들이었다.

짧은 기간 내에 철저히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교육도 먹이지 않았다. 교육 강사들은 민주주의의민을 교육하므로 오히려 반향적인 사고만 키워 주었다.

교육일정을 잡아 교육당에서 일방적인 공산주의의 강의를 하였는데 그들의 눈빛은 새로운 감각을 갖는 것 같았다. 그들은 공산주의의 이론을 알지 못하고 당시 인민군들의 앞잡이 역할만 한 것으로 처음 듣는 공산주의의 이론교육이었다. 공산주의의 이론을 마치고 비판에서 민주주의를 비교 강의 하였다. 교육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주의로 전향하겠다는 전향서에 무인을 찍는다면 지금 즉시 형무소에서 내보내 주겠다고 말했으나 그들은 한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 물론 군중심리도 작용 했을 것이다. 사상의 개념을 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당시의 죄악수들은 6·25당시 약탈한 수법으로 우리의 이웃인들을 학살한 자들이다. 인민위원회와 자유대 사무실 바닥에 우왕좌왕 일곱명씩을 옷을 벗기고 뒷걸걸하고 무릎 굽히고 무릎사이에 몽둥이나 나무막을 넣어 고통 중에 참나무 몽둥이로 머리에서부터 허리 한지에서 일곱 명을 모두 참혹하게 죽인 자들이며, 가진 수법으로 우리 공작자를 찾아 죽인 살인자 들이다.

대전 형무소에서는 3개의 대형 우물에 사람을 산체로 거꾸로 쳐 넣어 약삭빠르게 생수장 사기고 우물 뚜껑을 닫고 무거운 돌을 올려 사람 장아찌를 담은 것이다. 이러한 민행은 지구상에 없었던 일이다.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의 민행을 잘 알고 있는 안된다. 북한과 대화의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무릎 꿇고 찾아와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철저한 사상무장으로 다시는 이땅에 공산주의가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국권력과 자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앞으로 세계 G3국에 우뚝 서도록 국민 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축 부 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총회 2014 축 부 활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윤석철 박사
천복교회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강대일 목사
평안교회임상국 목사
천복교회주지광 목사
사천대교회서재식 목사
풍성교회허봉도 목사
서광교회송인섭 장로
양문교회이점수 장로
천복교회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 합동보수 총회의 『다짐』 ■

1. 하나님 마음에 드는 회원과 총회가 되도록 하다.
2. 회원 간에 화합과 결속을 갈기 하다.
3. 회원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총회와 노회가 되도록 하다.
4. 신학과 정치가 같은 회원을 받기로 하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총회장 이규필 목사 외 임원일동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02)496-0191, 496-0181(FAX)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호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4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가까울수록 좋다.

성경: 시편22편 찬양: 339장

본 시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예언한 메시아에 예언 사입니다. 대적자들의 압박으로 인해 고초를 당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의 본시는 메시아에게서 자기백성을 위하여 당하실 수난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1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도움 받을 곳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기도응답의 비밀

성경: 시편17편 찬양: 484장

시편17편은 신앙 때문에 악인에게 핍박당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간구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아뢰면서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문제를 만나거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성경: 시편27편 찬양: 388장

본시는 압살롬의 반란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비탄 사입니다. 특히 다윗의 사들 가운데서 어떤 시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승리의 확신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입니다. 우선 다윗은 1절을 통해 “여호와여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여호와여 내 생명의 능력이

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오늘 이 믿음의 선포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당당하게

성경: 시편28편 찬양: 391장

본 시는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호소하는 다윗의 비탄사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자신의 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1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하여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다윗처럼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변질되지 말고 변화 되자

성경: 시편19편 찬양: 55장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구수하게 더 깊은 맛을 냅니다. 곰팡이도 피지만 그것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역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질이 아닌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복의 근원

성경: 시편24편 찬양: 28장

본시는 다윗이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을 기념하여 지은 찬양입니다. 그는 24편을 통해 하나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25절을 영광의 왕임을 소리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5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누구에게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입니다. 누구에게 의를 얻습니까? 하나님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복과 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부족함이 없으려면

성경: 시편23편 찬양: 412장

다윗은 시편23편을 통해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인도자와 보호자로 삼는 사람들

은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호와와 우리들의 목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목자로 믿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될것 믿습니다.

제목: 분명히 우리가...

성경: 시편18편 찬양: 388장

시편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한 사입니다. 사려를 극복하고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자난날을 돌아보니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 주셔서 마침내 지금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승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위기와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승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성경: 시편25편 찬양: 538장

본 시는 원수들의 압박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비탄 사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위하여 부르짖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다윗처럼 소망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소유권

성경: 시편28편 찬양: 340장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으며 나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며 복과 구원을 9절을 통해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특히 다윗이 여기서 “주의백성” “주의산업”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문제 앞에 낙망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승리 이후에도

성경: 시편29편 찬양: 412장

본시는 승전 후 하나님께서 감사 찬양한 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승리를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는 일차적으로 다윗 언약에 입각하여 다윗 자신이 항상

대적을 물리치며 그 가문을 영구히 보존하게 될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문제 앞에 낙망하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도전으로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오늘 다윗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므로 마침내 승리의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부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는 가정

성경: 시편20편 찬양: 288장

본시는 다윗이 출전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한 사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령을 수행하는 자신에게 반드시 승리를 베푸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적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껏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줄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는 승리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주께 없습다.

성경: 시편16편 찬양: 403장

시편 16편은 시편에 나오는 일곱 편의 메시아 예언시의 하나입니다. 본문은 여호와 유일 신앙을 가진 자의 복락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는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여 죽음의 위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신앙고백입니다.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다윗처럼 주께 나 나의 복이 없음을 알고 극한 상황 속에 있을 지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주의 장막 안에

성경: 시편15편 찬양: 442장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으며 주의 성전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라고 다윗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물질과 권력을 반식악마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다윗의 찬양처럼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영영히 요동치 않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궁한 희망과 기쁨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다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안겨 주셨습니다. 겨우내 잠자던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새순이 돋고 봄의 전령사인 꽃들이 활짝 피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같이 과연 우리의 희망이 되신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까.

겨울의 차가움과 무거운 대지의 압력을 이기고 돌아난 새싹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홀무덤에 묻히셨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썩을 것으로 심겼으나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천한 것으로 심겨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심겨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겼으나 다시 영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전 15:20)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 11:25-26)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를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튼튼히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마다 오늘 부활의 신앙과 축복을 붙잡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릎으로 말하고 무릎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 반드시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과 기적의 부활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진우 목사
본지 사장

부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 1:22)

소진우 목사 2013년-2014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2년 8월
5 전보산기도원(우택진원장)
8-10 한일산기도원(이영근원장)
11-16 광운기도원(김한배원장)
20-23 갈멜산기도원(이옥란원장)
27-30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012년 9월
2 전보산기도원(우택진원장)
3-5 주우리교회(이홍규목사)
10-12 새암교회(김병식목사)
17-20 교단총회
24-26 일신제일교회(전청대목사)
30 전보산기도원(우택진원장)

2012년 10월
8-10 신일교회(정병수목사)
12 한일산기도원(이영근원장)
15-16 정기노회
19 성소기도원(박정원원장)
22-25 진리교회(송대규목사)
26 갈멜산기도원(임예재원장)
28 전보산기도원(우택진목사)
29-31 감동지역교회연합회(회장:한신원목사)

2012년 11월
3 주한기교회(김홍수목사)
5-9 선교지방문
11-14 동서울교회(리계동목사)
19-21 정성교회(이영근목사)
25 전보산기도원(우택진원장)
26-28 예수비전교회(이승걸목사)

2012년 12월
2-7 부흥성교회(예복교회)
10-15 불리핀선교대회
17-19 예원교회(한규식목사)
23 전보산기도원(우택진원장)
27 갈멜산기도원(임예재원장)

2013년 1월
1-3 과천예복교회(노영수목사)
7-9 정암성결교회(강석진목사)
10 강남금식기도원(김성광원장)
14-16 김신교회(김중환목사)
20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1-23 참중은교회(기갑삼목사)
28-30 정남교회(조성민목사)

2013년 2월
1 한일산기도원(이영근원장)
5 청사광교회(강신조목사)
8-10 갈멜산기도원(이옥란원장)
11-14 한일산기도원(김한배원장)
17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8-20 평정성결교회(남동수목사)
21 갈멜산기도원(임예재원장)
25-28 임마누엘기도원(이수영원장)
비전교회(조성현목사)

2013년 3월
17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13년 4월
1-3 광복내교회(김성웅목사)
8-11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14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5-16 정기노회
22-25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9-1 주우리교회(이규홍목사)

2013년 5월
3 C제일TV예배
6-8 청사광교회(강신조목사)
11 주한기교회(김홍수목사)
13-15 예원교회(정병수목사)
17 갈멜산기도원(임예재원장)
19-6월1 주주연속특별심사기도회

2013년 6월
3-5 한일산기도원(우정재원장)
10-13 동서울교회(리계동목사)
14 오산성결교회(최대현원장)
17-19 나들교회(최종수목사)
20-21 근대미림교회(송대규목사)
24-27 전주기도원(김신종원장)

2013년 7월
1-3 은혜교회(유권재목사)
7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8-10 성산교회(신승준목사)
15-19 선교지신학교여름특강
21-27 예복교회 특별기도성회(담임:소진우목사)
28 세계명교회(지영아목사)
29-31 한기전교인연합수련회

2013년 8월
2 한일산기도원(이영근원장)
3 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재원장)
4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5-8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12-15 광운기도원(김한배원장)
19-22 갈멜산기도원(이옥란원장)
26-29 전보산기도원(최정숙원장)

2013년 10월
4 노현성교회(박성일목사)
7 대성미디어예배
7-9 별빛교회
14-15 정기노회
17 부흥사역원수련회
20 전보산기도원
21-23 인천성산교회
27 선교사파송예배
28-30 관암성교회

2013년 11월
4-9 선교지방문
11-13 행복찬교회(박성일목사)
18-20 정원제일교회(최준연목사)
24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5 서광교회(김청수목사)

2013년 12월
2-8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9-15 2주연속부흥회(예복교회)
16-16 임마누엘교회(이성원목사)
30-31 송영구교회예배준비기도

2014년 1월
1-3 모란순복음교회(양영열목사)
4 능곡명성교회(송한철목사)
6-9 소망교회(조성봉목사)
13-16 목양장교회
17 한일산기도원
19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22 영광교회
27-30 광은기도원

2014년 2월
3-6 갈멜산기도원(이옥란원장)
9-12 인천은혜교회
16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7-19 대구열린교회
21 갈멜산기도원 금요월야(임예재원장)
23 성교회
24-26 대구중앙교회

2014년 3월
불철 축복대심방
원천교회(최정근목사)
3-5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6

2014년 4월
7-10 광산수양관(범만석원장)
13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4-17 축복교회(배성은목사)
21-22 정기노회
28-1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2014년 5월
1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12-14 나들교회(최종덕)
19-21 소망교회(박종수목사)
25-31 특별심야대성회(예복교회)

2014년 6월
2-4 비전교회(양승식목사)
8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9-13 선교사집중세미나
16-19 변별성교회(서형배원장)
23-27 선교지방문

2014년 7월
6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7-10 예덴교회(양호숙목사)
14-17 모리아기도원(조선훈원장)
28-30 전교인여름수련회

2014년 8월
3 전보산기도원(우정재원장)
4-6 한일산기도원(이영근원장)
11-14 광은기도원(김한배원장)
18-21 갈멜산기도원(이옥란원장)
25-28 천문기원(최정숙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아름다운 리조트, 쉬고 싶은 리조트, 평안한 리조트”

한국교회 위한 한정판 이용회원권 10년 254만원 파격분양



이수원 회장

매년 교회의 지방 및 외부 단체행사 고민 가운데 하나는 적당한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회에는 매년마다 행사 장소를 구하기 위해 담당교역자나 실무책임자가 동분서주로 움직이며 교회의 규모에 맞는 적합한 장소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을 이제는 그만 할 때가 됐다. 크리스천 기업인 현대 수 리조트(이수원장로, 통합)가 한국교회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유럽형 펜션인 수제너두(둔내소재)와 현대 수리조트(속초소재)를 파격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한정판으로 선 본다.

총 분양가 254만원인 이용회원권은 10년 동안 언제나 사용이 가능하며, 이중 보증금 1백만원은 5년후 환급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 보는 한정판 이용회원권 보유하면 유럽형 펜션(둔내소재)과 콘도(속초소재)를 유류 객실에 한하여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교회 단체인 모임, 워크샵, 수련회 등 회원이 주최하는 것 일 경우 특별할인 혜택과 세미나실, 강의실 등 부대 강연시설 이용에 각종 혜택도 함께 주어지므로 교회나 성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가 있다.



사실 현대 수리조트는 그간의 우여곡절을 앓고 있었지만 현재의 경영자인 이수원 장로(대표이사, 통합/아침동교회 시무)가 2008년 인수 후 탁월한 경영을 통해 과거의 부실기업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이제는 건실한 리조트 기업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 장로는 기업인수와 관련 2008년 부도 기업인 속초 소재의 (주)현대훼미리타운을 은화로 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해 리조트 가운데 “秀”를 넣은 것은 이수원

름다운 리조트, 쉬고 싶은 리조트, 평안한 리조트”를 지향하고 새로이 회사 표어를 “IF YOU DREAM IT, YOU CAN DO IT.” 즉, “꿈을 갖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룬다”라고 표어를 갖고 임, 직원들과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인수 당시 (주)현대훼미리타운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과거 관계 회사였던 (주)현대훼미리리조트와의 관계, 세금 미납, 임금체납, 시설 낙후,

원대표에게 양도하여 인수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중략... 본지 JTNTV 인터넷방송 www.jtntv.kr에서 중략 없이 자세히 볼 수 있음...

금융권 대표이사 출신인 이수원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서비스 교육을 한 적도 많이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 후 과거의 불명예로 인해 기업체와 공공서, 여행사 등을 거절도 당했지만 1년 내내 찾아가 변화한 현대 수리조트(콘도)를 알려 현재는 많은 고정 거래처가 확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정리 또는 그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5년이 소요 되었다고 한다. 이전의 5년에 확보된 신뢰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회원권을 새로이 판매를 하여 앞으로의 5년을 계획하고자 이수원 대표이사는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10년 만기 254만원의 회원권을 판매하는데 이중 보증금 1백만원은 보증금을 금융권에 회원 가입자 명의의 5년 만기 정기예금통장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으로 가입자는 5년 후에 보증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보증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이 회원권은 전국 50여 곳의 콘도 및 펜션 체인이 제휴시설로 되어있고 또한, 워터파크등 놀이 시설과 전국의 호텔 등도 예약 이용 할 수 있어 하나의 회원 가입으로 여가 생활 준비가 완료되는 특가 상품을 판매한다고 한다.문의: 02-568-6066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현대 수리조트 이수원 장로

대표의 돌림자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잘 운영하여 보겠다는 신념 경영의 표현으로 상호변경을 하였던 것. 하지만 부도기업을 인수하다보니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7년여 지난 지금은 모든 오해와 법적 조치가 마무리 되고 영업을 신장이 되고 시설은 일부 개보수하여 많은 시설 개체를 했다.

또한 이장로는 리조트를 “아

서비스 마인드 부재, 회원(고객) 및 거래처의 신뢰성 저하 등 모든 약재가 가득했던 시기였다고 한다.

이수원 대표이사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인수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을 보아야 할 것이 (주)현대훼미리리조트와의 정리였다고 한다. 그 관계를 보면 (주)현대훼미리타운의 속초시설(475실)을 (주)현대훼미리리조트 회원 가입 고객에게 체인사로서 이용 혜택을 주는 형태의 계약이 되어 있어 (주)현대훼미리타운은 객실을 제공하고 객실료를 받는 관계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경영자가 현대훼미리 리조트의 가족호텔과 현대훼미리 타운과 같이 부도가 나서 현대훼미리리조트는 경매에 들어가서 타인에게 낙찰이 되어 회사가 없어졌고 속초 현대훼미리타운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직원들이 비상운영을 하였다가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갖고 있다가 속초 현대훼미리타운만 이수

해운대성령대집회 ‘525 회개의 날’ 기도회 가져

“핵심은 ‘진정한 회개’... 한국교회가 살길은 기도뿐”

“전시성 동원성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고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목회자가 먼저 뿌리고 그 뒤를 성도들이 따라와 줄 때 한국교회가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성령대집회 ‘525 회개의 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6일 오전 11시 해운대성령대집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규현 목사, 수령로교회)는 부산문화회관 영빈관에서 ‘교계 지도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 울산 경남 등지에서 참석한 2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위원회는 집회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교회별 캠페인 동참 등을 당부하며 ‘525 회개의 날’은 참석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강조했다.

또한 준비위원장 이규현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각종 방법론과 인위적인 요소, 물질주의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혔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교회 특히, 목회자들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라며 목회자들의 기도가 절실함을 호소했다.

이어 준비위 박성규 목사(부전교회)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물이 마른 한국교회를 적시고 세속에 물든 우리의 자화상을 바로 세우자”며 30여분간 가슴을 치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다.

준비위는 또한 ‘이제는 달라지겠다’는 7가지 약속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3가지 다짐을 하고 집회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가지 약속은 △경제-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다는 것이며 △언어-막말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겠다는 것과, △문화-퇴폐문화 멀

리하고 깨끗하게 살겠다는 것. △가정-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겠다. △이웃-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돌겠다. △환경-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다. △나라-대한민국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이다.

또 3가지 다짐은 △예수님 외에 스타를 만들지 않겠다. △이벤트가 아니라 운동이 되게 하겠다. △내교회를 넘어 공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했다.

한편, 해운대성령대집회 가 목회자들이 지난해 11월 감람산 기도원에서 1차 목사회개기도회를 개최한 후, 시간이 갈수록 참석자들이 늘어나고 기도회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오는 △6차기도회는 4월 16일 포도원교회에서 △7차기

도회는 5월 14일 수령로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해운대성령대집회 ‘525 회개의 날’은 5월 25일(주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오후 4시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5시~9시까지 5시간 동안 개최한다.

집회 장소를 해운대백사장으로 정한 것은 6.25전쟁 당시 민족적 위기 앞에 교계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각각 초량교회와 해운대백사장에서 기도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나아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며 영적 복진과 서진으로 민족이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영화 ‘시선’ 언론 방송기자 시사회

한국 영화의 가장 이상호 감독이 주연을 역임한 이후 처음 메가폰을 잡은 영화 ‘시선’이 전국 개봉을 앞두고 특별시사회를 갖는다. 한교연 출입기자

와 문화담당 기자들을 특별시사회에 초대한다. 영화 ‘시선’은 제18회 부산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이상호 감독이 19년 만에 연출한 작품. 2014년 이스마르 리얼리티 지역, 세속적인 선교사 조용한(오광

록 분)의 안내로 선교여행을 떠난 8명의 한국인들이 이슬람 반군에게 피랍되면 서 생명의 위기 속에서 인간의 본성인 위선, 거짓, 불신, 미움 등 갈등 상황이 드러난다.

순교나 배교를 놓고 신앙인이 겪게 되는 내면 갈등 상황을 묘사한 이 작품의 배경에 대해 이상호 감독은 엔도슈사쿠의 ‘침묵’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1일(금) 오전 10:20까지이며, 장소는 서울 용산역 CGV개봉관이다.

초청대상은 한교연 회원교단 및 단체 대표, 교계 기자, (참석 희망자는 신해미 간사(☎070-7433-2016)에게 필히 사전 연락 요망), 시사회일정 시사회에 앞뒤에 불현예배와 감독, 주요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할 예정이 다.

축 부 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절)



〔사단법인〕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할렐루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파하여 사명을 받은 동지 목사님 여러분의 교단과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대표회장 이병성 목사 외 임원 및 이사진 일동 배상



이병성 목사



지왕철 목사



박동호 목사



민정식 목사



이상원 목사



이청구 목사

【사】한보협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7길 25 6층(화곡동 호용빌딩)

☎02)2608-2190, 2198 / FAX:02)2608-2191

http://www.hankibo.co.kr Email : hankibo@naver.com



담임목사
모 상 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MokpoJwan Presbyterian Church

본교회 : 목포시 청호로159 (북항동)

TEL, 061-272-4908 FAX, 278-0693

남약예배당 : 목포시 남약2로 52번길 남약크리닉A동 301

TEL, 061-287-0692

한국경목총, 연천경찰서 위문 및 수련회 가져

경기 연천경찰서, 군수환영회, 통일전망대, 양로원 위문



▲연천경찰서 위문



●아름다운교회 부설기관 효도의집 방문

또한 한경총 증경총회장 허 식목사와 일행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소재 아름다운교회(유종길 목사)를 방문하고,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인도로 감사예배가 진행되어 우슬초 목사의 기도 후 김창룡 목사(하나님미디어인사교회)는 성경 행2:1~4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이탈리아국립 비보발렌시아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성악가 소프라노 유정화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열창하자 많은 박수갈채 속에 3번의 앙콜을 받는 등 참석자들로 하여금 감동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날 수원화령루아농아교회 일혜숙 목사(한경총 협동총무)는 유종길 목사에게 또한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는 성악가 소프라노 유정화에게 성교활동에 써 달라며 헌금을 전달했다. 이어 유종길 목사는 환영인사에서 감사를 표하고 경기 연천에 들어와 개척하여 올 7월이면 22년째가 되며, 그동안 많은 필박과 아픔이 있었지만 눈시울을 적시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사역에 생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한경총 증경총회장 허 식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아름다운교회 방문



▲성악가 소프라노 유정화

한국경목총회(총회장 이상재 목사)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0시 경기도 연천군 차탄리 연천경찰서(총경 연영환 서장), 연천군수환영회, 통일전망대, 아름다운 교회 부설효도의집 방문 등 위문행사를 가졌다.

●연천경찰서 위문

유인하 경무계장 사회로 연천경찰서 각기관장들을 소개하고, 한국경목총회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는 허 식 증경총회장, 총회장 이상재 목사, 그 외 임원들을 소개한 후 한경총 우슬초 목사의 특송과 연천경찰서 경목위원장 유종길 목사의 차녀인 성악가 유정화가"아 하나님의 은혜"의 특송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연영환 연천경찰서장은 경목총회 총회장 이상재 목사, (재)아름다운 이사장 임준화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한경총 총회장 이상재 목사는 연영환 서장, 유종길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총경 연영환 서장은 환영인사에서"연천경찰서 경목위원장 유종길 목사를 높이 치하하고, 매주 경찰서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매일 강단에서 전직원이 참석하여 범죄 없는 연천지역과 연천경찰서의 융성한 발전을 위하여 연천서 목회자들이 경찰직원들에게 좋은 설교를 통해 연천지역이 전년에 비해 범죄가 30%가 감소되었고, 전년도 경기도내 범죄감수율 1등과 주민 치안만족도 경기도내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속해서 연천경찰서 전직원들은 한국경목총회 목회자들과 우애를 돈독히 하여 행복한 연천지역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했다. 이어 답사에 나선 한국경목총회 총회장 이상재 목사는 연천경찰서 전직원들을 격려하고 증경총회장 허 식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경기 연천군청 방문

이어 한국경목총회 총회장 이상

재 목사와 임원일행은 김규선 연천군수의 초청으로 군청을 방문하고 군 직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이어서 김 군수의 환영사에 이어 총회장 이상재 목사의 답사가 이어지는 등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아울러 이 총회장은 김규선 연천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김 군수는 지역발전에 대한 자량과 연천을 돌아볼 수 있는 관광안내와 연천의 농산물 특산물 쌀밥같은현미 연천아리랑을 소개하고 선물로 증정한 후 오찬을 나누었다. 특히 (재)아름다운 이사장 임준화씨는 장례문화개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유종길 목사(아름다운교회 당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유 목사는 연천지역 경찰서와 군청을 방문해준 총회장 이상재 목사를 비롯 임원일행을 환영하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유 목사는 또 연천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면서 연천

이 완공단계에 이르렀고, 군인아파트 3500 세대와 2017년도 말까지 1호선 전철역사가 완공된다면서 지역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부회장 이창식 목사의 기도가 있는 후 총회장 이상재 목사는 신명기 33:29절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의장 이상재 목사의 사회로 임원회가 개최되어, 안전토의에서 4월중 1)예수님의 수난, 부활절에 배는 서울남부구치소(재소자 100명 참석)분당에서 4월 10일(목)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4월 28일(월)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대문 대광교회에서 임원회를 개최하고, 기타 안전토의를 가졌다.

한국경목총회 총회장 일행은 연천경찰서의 안내를 받으며 민통선 안에 있는 연천 태풍전망대를 방문 임진강 건너편 북한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용맹스럽고 훌륭한 군인들을 격려하고 돌아왔다.



▲연천군청 방문



던커크의 기적

제2차세계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군대는 기습공격을 감행해서 순식간에 노르웨이, 벨기에, 프랑스를 차례로 유린하게 됩니다.

1940년 5월 20일 40만 명에 이르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은 프랑스의 항구도시 던커크 근처의 플란더스 해안에서 영불 해협을 건너 황급히 퇴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국군은 다이노모 작전이라고 이름붙인 구출작전을 세웠지만, 그 많은 병력을 제시간에 수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5월 23일 영국의 지도층, 신문

그리고 국왕 조지 6세는 5월 26일을 국가기도의 날로 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요청이 있는 뒤 하루만에 히틀러가 불가사의하게도 독일군대의 전 투정지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히틀러의 친위부대장들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 지금도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니다. 이를 뒤에, 영국에서는 운곡민이 기도에 동참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성당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 교인들이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던커크에 있는 자기 남편과 아들과 아버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이노모 작전은 그 기도가 시작된 날 밤에 거행되었고, 안전하게 모든 병력이 해협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전직 왕실 각료인 에드문드 아이언사이드 대장은 이날의 작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어째서 독일군이 우리 부대원들을 이런식으로 놓아주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폭탄과 총알이 바로 눈앞에서 쏟아지는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환상에 가까운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스가랴 4:6)

축 부 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눅 9:23)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성령의 임식	주일	오일	시 간	찬 소
예배 안 내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임신대태부 예배	주 일	오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전 7:30	지하 성전	
광요 기도회	광요일	오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회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행복샘전인치유센터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와 강사단장
- 경북대학교영양보건대학원학위원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은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이거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래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마티스관절염 평생지병 집회중 전로 기도로 고침받은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제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은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은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은

예배 시간 안내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 주일오전예배 오후 2:00
-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 새벽 기도회 오전 5:00
-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00-18(신전동)
☎ 053-752-8238 010-8537-8291

은총 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매일 첫째주(월-목) 정기성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매일 셋째주(월-목) 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주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

- 예정들로스총회 인천노회소속
-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인천)부흥사연구실장
- 지저스타임즈부흥사협의회 사무국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본사 사무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부흥회 및 부흥사 연구 요청”
http://kmission.onmam.com / cafe.daum.net/kmission
☎ 032)891-0651, 010-2080-0651

에녹부흥 사관학교

대 표	교장	사무국장	교무국장(교수)	사무간사
김해자 목사	김선우 목사	김성일 목사	김영애 사모	
교 수				
이창환 목사	박영화 목사	김장철 목사	곽영민 목사	

■곽영민 목사 약력

- 등불교회 담임
- 에녹부흥사관학교 · 부흥사회 대표연구실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8대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본사 사무국장
-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사무국장

http://kiea.onmam.com

중식 및 교재 무료 제공

-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 ☞ 장소 :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 ☞ 주소 : 인천 남구 능해길5(구, 남구 송의1동 441-45)
- ☞ 문의 : (사무국장)010-3499-2441

들로스 총회 신학 연구원 신학생 수시 모집
(문의:학장 김해자 목사 010-5517-7223)



연천 효도의집을 섬기는 성악가 소프라노 유정화

“정상에 서기까지 남다른 돈독한 믿음과 끊임없는 기도의 결과”

2013년 이탈리아 콩쿨에서 1등을 수상한 성악가 소프라노 유정화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찬양시역자, 소프라노 유정화 자매(32)를 만나 본다. 그는 경원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건너가 유학을 마친 후 최고의 성악가요 소프라노 유정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단체에서 찬양으로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 20일 경기도 연천경찰서와 군청을 위문하고 연천 아름다운교회를 방문하고 40여명의 노인들을 섬기고 있는 효도의집을 돌아보며 예배를 드렸을 때 원장 유종길 목사의 차녀 유정화 자매의 찬양은 한국경목총회 임원일행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성악가 유정화는 2012년도 이탈리아 세계콩쿨대회에서 두 번의 2등과 3013년도 1등을 수상하기까지 타고난 실력가이다. 하지만 오늘의 성악가 유정화가 있기까지는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아픔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성악가로 정상에 서기까지 남달리 돈독한 믿음과 끊임없는 기도의 결과라고 믿는다.

유학을 떠나기 전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찬양시역자였다

유 자매는 유학을 가기 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찬양시역을 했다. 그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악을 너무 많이 사랑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성악을 더 많이 사랑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악을 포기하게 만드셨다. 너의 가진 재능을 내려놓고, 그냥 생으로 불려라...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음성을 주셨다고 한다.

성악가 유정화는 그때 당시를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 것 배운 게 몇 년이고 성악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걸 버리려하십니까 저는 포기 못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악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고 물으실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성악은 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드렸으며,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게 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찬양단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은 찬양도 하고 성악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해야지 하고 찬양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성악가의 창법을 제거해야만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의 목소리가 너무도 확 튀기 때문에 함께 하는 찬양단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 창법으로 계속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시험이 들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라... 나를 위하여 하라는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6개월쯤 지났는데 찬양축제가 있던 날, 제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생각을 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생각을 쏟았습니다. 그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며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나타났습니다. 만일 그것을 알았다면 창피해서 그 동작을 하지 못했을 것인데, 그러나 저는 너무 심취한 나머지 목이 터지도록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이제 됐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경원대학교 성악과에 합격

을 했다.

제가 기도하던 중 성남시 경원대학교 성악과에 원서를 내고 5명을 뽑는데 수백 명이 응시하였고 5명의 등수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악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두곡의 노래를 선정하여 불러야 하는데 찬송가는 안 되고 사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몰라서 고민 중에 언니가 피아노를 치며 보리밭을 선정하여 연습을 했는데 결과는 그 많은 경쟁자를 누르고 시험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날 이후 필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수원 환돌산기도원(원장 윤석전 목사)에 들어가 몸부림치며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필기시험 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차를 타라며 시험장까지 태워다주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2005년 경원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것입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과기도로 유학의 길을 열어준 손성래 교수가 있었다.

제가 유학을 가야겠다는 결심은 서 있지만 모든 여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자의 몸으로 유학은 위험하니 이제 시집가서 편안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접었는데, 그때 전화를 주신 손성래 교수님이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설득하신 결과 유학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좋은 손성래(45) 교수는 항상 친자매처럼 유 자매를 너무도 사랑했기에 성경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많은 지도



▲ 유종길 목사, 소프라노 유정화 부녀

를 해주었고 유학을 가 있을 때도 말씀으로 지도를 해 주었다는 손 교수가 자신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사라고 한다. 그는 이탈리아국립대학에서 성악공부를 마치고 지난 해 11월에 한국에 돌아와 아버지 유종길 목사를 도와 효도의집에서 자원 봉사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현재 한·러시아 오케스트라에서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다.

70%가 카톨릭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악가 유정화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음성을 들려 주셨지만, 문제는 이탈리아 70%가 카톨릭이란 점이다.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크리스천으로 발각되면 이단취급을 받게 되고 급기야 회사에서 쫓겨나고 만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시길 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전단지를 만들어 콩쿨대회장에서 배포하면 거부감 없이 전단지를 받아갔으며, 큰 어려움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성악가 유정화...

큰 무대에서 찬양과 말씀을 전하라는 음성을 주셨다

하나님은 유 자매가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셨다. 물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큰 무대에 세워주겠다는 꿈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다. 다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넓고 큰 무대에서 찬양을 부르며 복음을 전하라는 꿈을 주셨고, 얼마 후 실제로 올림픽경기장 넓은 곳에서 찬양을 부르며 복음을 전해 달라는 꿈을 받았고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너무 크다고 말하는 성악가 유정화 자매...

사실 그는 갑자기 큰 무대에 서게 되자

우쭐해지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때 하나님은 유 자매의 그러한 생각을 다 아시고 ‘정화야 그러한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 다 내려놓으라’ 는 음성을 주셨을 때 그는 즉시 내려놓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악가 유정화를 도구로 써 주셨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도 좋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고백한다.

그는 신학대학교에서 성악과 교수로 일하고 싶다고 한다.

성악가요 소프라노가 전공인 유정화는 신학대학원대학교 또는 신학교에서 교수로서의 사역을 다하고 싶다며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한·러시아 오페라단(단장 손성래)과 함께 4월(목)3일 오후 4시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회를 가졌으며, 금년 6월까지 한·러시아오페라단에서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정화는 성악가이며 지휘자로 석사가 되었다.

학력 : 소프라노 성악가 유정화는 1997년 경원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여 1999년 이탈리아 AIDM 아카데미아, 2010년 이탈리아 Vibo Valentia Biennio accademico(internazionale) 과정수료, 2011년 이탈리아 Vibo Valentia conservatorio internazionale 이탈리아 국립대학원 졸업(디플로마),

경력 : 1996년 오페라 ‘밤의 여왕’ 공연(밤의 여왕 역) 그 이외 영산아트홀에서 다수공연, 1998년 로마 한인교회에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주인공 역) 로마한인교회 다수 공연, 2011년 Concorso Musicale Internazionale “Paolo Barraso” 국제콩쿨 2등 수상, 2011년 Concorso Musicale Internazionale “Valeria Martina” 국제콩쿨 2등 수상, 2012년 ROMA에서 오페라 ‘돈 지오반니’ 공연, 2013년 Concorso Musicale Internazionale “paolo luigi” 국제콩쿨 1등 수상, 2013년 이탈리아시립학교 지휘자격증 취득(만점10점에 10점 취득) 하였으며, 소프라노 성악가로서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많은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실력가이다.

누구든지 성악가 유정화의 감동어린 찬양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고는 그를 안다고 할 수 없다. 천상의 목소리를 갖춘 유 자매는 한국재난구조, 세계평화한민족음악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미모가 뛰어난 성악가이다. 유정화는 (부)유종길 목사(55), (모)임진숙 사모(59)의 3남매 중 차녀로서 현재 한·러시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단체인 교회행사에 초청을 원하시면 성악가 유정화를 적극 추천합니다. 연락처 : JTNTV방송(대표 정기남 목사)HLP 010-5468-6574 (2014년 6월 말까지는 예약되었음!)...

표어 대한민국 13만 경찰과 60만 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부활



한국경목총회 2014 부활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전국
경목위원들의 사역위에 가득하시길 바라며
한국경목총회가 기도드립니다.



사무국 : 서울시 구로구 개봉 3동 370-40 / 02)2625-0982
경찰 선교에 관심이 있는 경로위원을 초대합니다.(이사.중앙위원)
110-74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교회관
한국경목총회 전화 02)583-1955 팩스 02)868-0652

문의 : 사무총장 홍향표 목사
010-7585-1955
홈페이지 사이버 경찰청 주요사이트 : 한국경목총회
www.gapck.or.kr

김지혜 목사의 간증

나는 탕자의 삶, 알코올중독자였다!



김지혜 목사, 인생 끝자락에서 붙잡은 기적... 하나님의 손

나의 인생의 끝자락은 너무도 참기 어려운 나날들, 좌악의 집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고, 급기야 자살까지... 그때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 손은 내게 생명의 손, 기적의 손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다.

김지혜 목사(방주공식기도원 원장)의 두 번째 간증의 시작은 "로봇처럼 훈련받은 결과 각색질병을 치유하는 역사, 영등포역 노숙자 전도, 방글라데시와 인도선교 여행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등이 이어진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이시간도 역사되고 있다는 김지혜 목사와 김순종 장로...

로봇처럼 신령을 강철처럼 만들어 달라며 기도들...

김 목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入山(입산)하여 두 무릎을 꿇고 "세상 것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주님만 내게 계시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언제 어디서든지 쓰실 수 있는 종"으로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보고 살고 싶어요" 하며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로봇이 주인이 조종에 의해 움직이듯이 자신도 주님 명령에만 순종하고 전진하는 로봇처럼... 심령을 강철처럼 강하게 만들어 달라며 기도를 드렸다.

그 후로 주님은 내게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전도와 기도, 말씀 안에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또 한 어떤 사역도 가리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도구로 지금까지 써 주신

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경함담을 털어놓았다. 사역자 자신이 암이나 다른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안수기도를 하면 환자에게 그대로 전염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역자가 질병이 있다면 먼저 금식하며 치료 받은 후 안수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 오는 질병도 있고, 노환으로 오는 질병도 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은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해야 하고, 죄와는 상관 없는 질병도 있다고 했다.

원장 김지혜 목사는 광주에서 기도원을 개척하고 매일 시키는 기도가 있었다. "주님 마하나임 여호와 의 군대 주님의 용사들이 모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하게 달라는 기도"였다.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와 찬양만 드리게 해달라는 간구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하나임' 주님의 군대가 되고, 이러한 종들을 만나게 해 달라는 기도를 시키셨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 나타난 신유의 역사...

또한 하나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선물로 성지순례를 보내주셨다. 곧 고대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뿔 때였다. 갑자기 통곡이 터지면 참회함도 없이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 많은 핍박과 설움, 때론 어렵고 힘들었을 때, 지치고 넘어지고 사역을 포기하려 했던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회개의 통곡이 터져 나왔다.

'주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기 까지 하셨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울었다. 그때 주님은 나지막한 소리로 좋아 내가 모세처럼 쓰셨노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망의 울무에서 건져내어 진리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셨다.

순례를 다녀와서 각색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 내외가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하는데 '순간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식구 중에 환자가 있으니 고쳐 주어야 하겠다. 결과는 상담을 온 가족 중 중증으로 거동도 잘 못하는 어머니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와 예배가 끝난 후 손을 잡고 일으키며 기도를 했는데 환자가 일어나 걸었으며, 예배를 드렸던 모든 이들이 박수를 치는 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통스러운 통증을 앓던 자궁암 환자가 치유 받았고, 헤장암 말기 환자가 기도원에서 힘차게 찬송을 부른 후 말씀을 보고 찬송을 부른 후 기도를 받았는데 다음날 통증이 사라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정말 신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오십견, 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암, 중독증, 유전병, 풍, 각종 이름 모를 병은 물론 아이를 못 가진 여인이 태운이 열려 애를 낳는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차를 팔아서라도, 공과금보다내는 것보다 선교가 먼저...

원장 김지혜 목사는 남편 김순종(봉식)장로가 주의 일하는데 아주 귀한 동역자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 김 장로는 얼마 전 차를 주셨는데, 갑자기 어려운 동역자를 도와 하겠는데 돈은 없고 해서 기도를 한 후 차를 팔기로 합의하고 새 차를 팔아 도왔다는 간증을 한다. 정말 보기도 못한 목사요 장로가 아닌가...

원장 김지혜 목사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선교를 하다보면 재정이 바닥이 날 때가 있다. 해외 선교를 위해 동행할 때 모든 경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즉 항공료, 숙박비, 선교지에 현금할 물질, 그 외 경비 등 기도원의 모든 물질을 다 쓰고 온

다. 그러다 보면 공과금 낼 금액과 학비 등을 선교비로 사용하다보면 공과금 학비, 월세, 전기료 관리비 등을 낼 수 없다. 하지만 믿고 기도하면 다시 재정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원장 김지혜 목사...

하나님은 영등포역 노숙자를 전도하게 하셨다.

영등포역 노숙자를 전도하게 된 동기는 당시 기도원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판넬을 바닥에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기도하던 중 물질이 들어왔다. 그때 영등포역 노숙자들이 생각이 나서, 들어온 돈을 먼저 저들을 위해 쓰기로 결정하고 밤에는 철야하고, 오전에는 집집마다 전단지지를 뿌리고, 오후에는 역전에서 전도하고, 오후에는 역전에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인도하는 등 분주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를 방문하여 선교하던 중 기적이...

첫 선교지는 방글라데시였는데, 해외 선교를 위해 대전과 광주에서 선교비를 준비해 주셨고, 어머니의 선교 후원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 가난하고 더운 나라 사람들의 피부색은 온통 검지만 하다. 그리고 질서 없는 거리를 보면서 정신이 어지럽다.

하루는 국회의사당 계단에 서서 찬송을 불렀다. 곧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여면서 의사당 청사를 지키고 있는 무장군인들이 찬양하고 선교팀을 응시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굶는 사람들이 많아 신문에 실을 주겠다는 광고를 내자 엄청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삼일 밤낮 그들에게 집회를 했고, 당시 저는 은혜를 받았지만 평신도였기 때문에 회장 목사님이



인도하는 데로 따라다녔다. 그때 집회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로 눈물바다가 이루어지고 여기 저기서 환자들이 치료함 받고 감사가 터져 나왔다. 그 후 주님께서는 인도로 선교의 길을 열어 주셨다. 첫 선교엔 한국에서 많은 것을 준비해 갔고, 60명이 넘는 학생들의 성별과 사이즈에 맞춰서 한국에서 저렴한 신발을 사고, 초코파이 24상자, 학용품, 라면, 고추장 등을 포장해서 인천공항을 이륙하여 인도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의 환대를 받았으며, 선교활동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잊지 못할 일들이 많았다. 힌두교 할머니의 치유와 개종을 잊지 못한다. 할머니는 힌두교 굽수분자이다. 할머니는 사원에 들어가 아무리 빌고 병원에 가셔도 병명을

몰라 고치지 못했는데, 전도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였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잡다한 우상단지들을 버리거나 불태웠고, 하나님은 진짜라며 고백했다. 그때 선교사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할머니는 얼마 후 한국에 들어와 소식을 들었는데 할머니가 치료받았으며 소문이 났고, 개종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할머니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며,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서 그 동리로 복음의 불길에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다. 할렐루야!

김지혜 목사의 간증은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세계를 여는 기도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기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용서하고 치료하고 구원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용서하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고,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와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

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죄악과 상처와 저주와 고통의 사랑이 있는 곳 어디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길 원합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붙들어주게 하

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마음속,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고난을 삶으로 끌어내어 피부로 느낄 수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가르쳐 주는 포기에서 오는 아픔, 정직하려는 노력이 주는 아픔, 겸손하려는 과정에서 맛보는 고통,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을 저의 삶 깊은 곳에서 느끼고 알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

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 2:6-8)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비난을 받으시고, 역을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침묵의 신비를 알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주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 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글 | 연요한 목사 (송실대 교목·교수)

주 부 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갈 1: 4)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대한노회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전하는 노회”



장 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반민규 목사 (백호살림교회)



박명자 목사 (도원생수교회)



유은주 목사 (조교정선교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임원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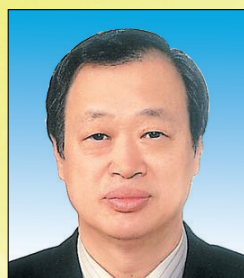
대한노회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고하7층)
☎ 031) 424-7612, H.P 010) 4436-7060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사랑 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2014년도 목표 : “어두움에 빛이 비치라”

- 선교사 : 김경자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 오후 5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 오후 6시
새벽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 낮 11시
금요일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초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 031) 424-7612 [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당회장 정대성 목사



담임 임찬미 목사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남북원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05-18 ☎ 070-7443-7277

홍재철 목사, 성경중심 복음주의 교단창립선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단창립을 선언하고 창립회원신청 공고



홍재철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경서교회원로

예장 합동 교단 탈퇴 선언이후 교단창립설로 한국교계에 관심을 끌었던 홍재철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단창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지난 4월2일부터 당월 말까지 창립회원신청을 공고했다.

홍재철牧사는 예장합동 총회 임원회가 한기총을 탈퇴결의 이후 홍 목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예장 합동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홍 목사는 교단창립 행보에 속도를 높이다가 새로운 교단 설립법인에 평강제일교회 주요인사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교단

창립선언을 선포했다.

성경중심의 순수한 복음주의 개혁교단을 창립선언.

이날 홍 목사는 교단 창립선언문에서 “한국교회 앞에 새로운 개혁교단, 정치가 없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단,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교단, 성령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하면 멈추는 교단”이라는 기치를 걸고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웨슬레주의, 순복음주의, 침례주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을 인도자로 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와 함께, 성경중심의 순수한 복음주의 개혁교단을 창립하고자 선언합니다.” 라고 밝혔다.

한편, 홍재철 목사는 교단설립에 자신감을 수차례 피력하며 새로운 교단에 뜻을 같이하는 목회자가 1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합동측에서 500여개 교회가 이탈하게 될 것이란 추측이 무성할 가운데 합동측은 이미 각 노회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새롭게 출발한 교단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단속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한국기독교 선교 130주년기념대회 열린다!

4월 25일 새문안교회 언더우드기념관에서 출범 기념 포럼

이정환목사, 정동섭목사 관련 입장 밝혀

한기총 이대위서 분명하게 사이비로 규정

“심영식, 김형원 장로 등 때문에 ‘하나되는 기쁨’ 조사 한것 아니다”

통합총회 서울북도회 소속 이정환 목사(前 한기총 ‘하나 되는 기쁨’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는 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서울북도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동섭 목사가 ‘교회와 신앙’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밝힌 인터뷰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정환 목사는 “처음 한기총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연구하게 배정된 당시 교회개혁연대와 평단협 등 일부 단체에서 공식 요청하는 공문이 들어와서 한 것이자 정목사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처럼 심영식 장로와 김형원 장로가 개입해서 한 것이 아니다”면서 “당시 소위원으로 위원장에 이정

환 목사(통합) 서기에 나두산 목사(합신) 위원으로 심우영 목사(중앙), 정해송 목사(개혁) 진용식 목사(합동)를 선출하고 책과 저자 및 추천인을 별개로 해 조사를 연구를 하게 됐다”고 연구 과정을 설명한 후 정 목사 주장처럼 특정인이 개입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 했다.

“하나 되는 기쁨” 책자와 연관성이 없는 인물들을 내세워 당시 내용 전체를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목사의 주장이다. 이 목사는 “내용을 파악한 후 성경적 신학적 검증 작업을 수행하고 저자와 추천자를 면담과 질의서를 통하여 그들의 진정성과 이단성을 파악하려고 노력 했지 정동섭목사가 주장한 것처럼 특정한 사주에 의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었고 사실과 다르다”면서 “조사 대상자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교수들과 탄원 내용도 귀담아 들어 한기총과 이단대책위의 위상을 높이고 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목사는 “정동섭 목사와 면담과 조사를 했고 그때 당시 합의서를 통해 ‘하나 되는 기쁨’의 책자에 대한 문제를 강준오 목사,

심영식 장로 김형원 장로 등이 이단 구원과의 사주를 받고 저자와 추천인을 해꼬지 하려는 목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주장은 자신들의 문제를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려는 잘못임을 지적하고 당사자들에게서 사과 표명을 권고하는데 정동섭 목사 합의했지만 그 후 정 목사는 언론을 통해 이와는 다르게 말을 했다”면서 “이에 따라 2010년 8월 2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층 기독교화해중재위원회 회의실에서 정동섭 목사를 면담하고 하나되는 기쁨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 추천인과 저자가 시인하였으며 ‘하나되는 기쁨’ 책자 전부를 소각하고 다시는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4개항을 합의 했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정동섭 목사가 전혀 연구조사와 관련된 팩트가 아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을 덮으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한국교회와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이 목사는 “왜 지금에 와서 정동섭 목사가 자꾸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당시 한기총 이대위는 분명하게 사이비성이 있다는 결론을 분명하게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목사는 “한기총 분열 원인으로 당시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면서 “최근 세이언이 몸집을 불풀리기 위해 무엇인가 이슈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피종진 목사 4월 국내·외 성회 일정

1(화)~ 4(금) 중국(China) 정주, 구련지역성회 주회,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총협의회(대표회장 강영선 목사)

6(주)~ 8(화) 신령운동국제총연합회(대표회장 황세환 목사) ☎ 010-9954-9191

11(금) 오후 일본(JAPAN) 오사카 생명교회(박승희 목사) ☎(090)3162-6913

14(토)~13(주) 목회자부총시연수원(원장 오관석 목사) ☎(043)269-5211

21(화)~17(목) 천주교신부대학(원장 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20(주) 저녁 김포중앙순복음교회(양부성 목사) ☎ 010-6330-3503

주최 :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총협의회(대표회장 강영선 목사)

총주최목음열린교회(전성종 목사) ☎ 070-8901-0191

총주금식기도원(원장 김승자 목사) ☎(043)853-3900

한국전도훈련원(원장 정민철 목사) ☎ 010-3224-2345

24(목)~26(토) 평양봉수교회 남북공동 조국평화통일기원기도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진요한 목사)

복측 : 조선그리스도교연맹(서기장 오경우 목사, 한경철 총교무장, 봉수교회 담임 송철민 목사)

남측 강사 : 이만신, 피종진, 박태희, 소강석, 김문옥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국제) 서남노회(노회장 박종두 목사) ☎ 010-3224-3003

의왕 대동성교회(강희정 목사) ☎(031)425-0105

세계복음화부흥사연합회(김명숙 목사) ☎ 010-9691-0675

28(월)~30(수) 일본(Japan) 동경 신성연합성회(대회장 김태일 목사) ☎ 070-8625-9118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9
T:02)3411-9191
F:02)401-7770
F:02)3411-9111

교단 창립 선언문



홍재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일제강점기와 6.25사변, 공산주의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봉화처럼 타올라 전 세계 한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교역자 여러분, 부흥과 축복의 원인을 제공한 한국기독교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대형교단이나 대형교회, 또한 연합기관들이 기독교 한류의 전 세계 센터가 되거나 곳곳에서 자라나는 한류의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보호해야 될 지금 수많은 선교단체들은

- 접수기간: 2014년 4월 2일(수) ~ 4월 30일(수) 까지
- 총회접수처: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35, 토산빌딩 6층
- 문 의 처: 대표전화 02-742-7737 (Fax. 02-2676-7737)
- E-Mail: habchong@hanmail.net
- ※ <교단가입신청서>는 문의처에 요청시 이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해 드립니다.
- ※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선교한다고 열을 올리지만,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곳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기독교 선례, 장자교단의 교권주의가 판을 치고 있으며, 거기에 이단감별사들이 기독교 한류의 씨앗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개탄스럽게도 현 기독교계의 현실은 대형교단들이 한국교회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거꾸로 교권을 이용하여 이른바 직업적 이단 사냥꾼들과 결탁하여 칼빈주의와 같은 특정 신앙노선을 앞세워 이단판정이라는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목회자들과 교인에 이르기까지 신앙인들을 수 없이 학살하는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판 바리새 교권주의자들이 자신에게는 정통의 기준을 아주 폭넓게 적용하여 스스로 정통, 장자교단, 칼빈주의라고 외치면서도 또한 남에게는 이단의 기준을 아주 넓게 적용하여 작은 고투리를 잡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행동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WCC를 지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들을 거역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와 세속주의와 예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수용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들이 낮에는 WCC를 반대하는 척 하면서 밤에는 WCC를 지지하는 위선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대판 바리새 교권주의자들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이상 한국교회의 재생장은 절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 “독자의 자식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 하고 무섭게 질타하셨고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대형교단의 교권주의와 이단 사냥꾼들 횡포가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상, 지

금것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 할 것이며, 보배 같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떠날 것이며, 한국교회는 소망은 커녕, 어느 때가 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유럽교회와 같은 무서운 결말을 맞고야 말 것입니다. 혹자가 2040년이 되면 한국기독교인 수가 200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불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대한민국의 통일준비를 누가 했습니까? 기독교가 해 온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준비하는 소리가 어느 때 보다 강한 지금, 이것만은 세상 방법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독교가 새로운 결심, 결단이 필요한 이 때, 감히 본인은

**한국교회 앞에 새로운 개혁 교단,
정치가 없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단,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교단,
성령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라하면 멈추는 교단,**

칼빈주의도, 알미니안주의도, 웨슬레주의도, 순복음주의도, 침례주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을 인도자로 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와 함께, 성경중심의 순수한 복음주의 개혁교단을 창립하고자 선언합니다.

저와 함께 100년 대계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단을 만들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 주기를 원하는 존경하는 목회자와 교회는 가입하셔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 교단 특징 및 중요 정강
- 1. 정년없음
- 2. 목회자의 목회 승계 문제는 성경대로 시행
- 3. 목회자의 세습문제는 반대
- 4. 종교 다원주의, 동성애, 공산주의, 세속주의를 반대
- 5. 현재 한기총 가입 회원 교단 및 교회는 가입불가